

2020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요인

임소영·김태후·민선형

요약

공익직불제 도입,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책 지원에 힘입어 농가의 경제 상황 개선

-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각종 농업보조금이 더해져 농가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함. 이전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때보다 커져 농가소득 증가의 주요인이 되었음.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가 공급 부족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는 농업소득이 증가

- 2020년은 역대 최장 장마 일수, 일조량 부족 등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더욱 높아졌던 시기로서 농산물 공급량이 감소함.
- 공급 부족 상황에서 농산물 소비 감소는 미미하였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상승하였고 이는 농업소득 증가로 이어짐.

코로나19가 농가소득에 미친 영향에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노동력 공급이 원활치 않아 농가의 노동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노무비는 감소하였음.
-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검입수입이 감소함.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농 간, 농가 간 소득 격차는 축소

- 2020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 가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축소됨.
-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 소득이 코로나 발생 전인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증가(증가율 21.6%)하여 소득분위 간 격차는 축소되었음.

농가의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농가의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상기후에 대응한 자연재해 예방과 재난 발생 후 보상체계 구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2020년에는 소득 격차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영세 고령농가가 저소득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폭을 확대하고 농지연금의 가입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제도도 현장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01

농가소득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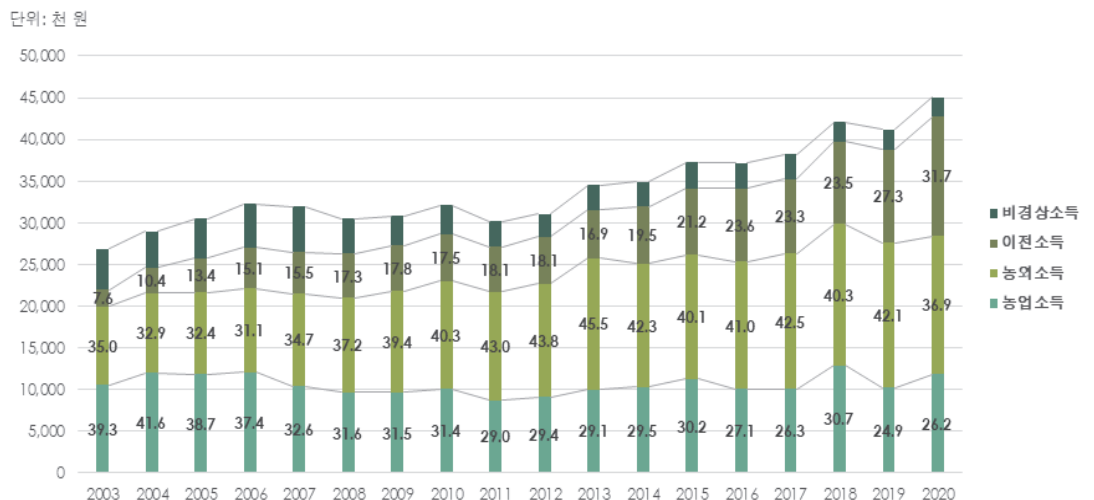
1.1. 2003~2020년 농가소득 변화

농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농가소득 증가를 견인

- 농가소득은 2003년에 평균 2,688만 원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4,503만 원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연평균 증가율 3.1%).
- 같은 기간, 평균 농업소득은 1,057만 원에서 1,182만 원으로 소폭 증가(연평균 0.7% 증가)하였으나 전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9.3%에서 26.2%로 급감하였음.
- 반면, 같은 기간 농외소득의 비율은 35.0%에서 36.9%로 증가하였으며, 이전소득 비율은 7.6%에서 31.7%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연도별 농가소득 변화 추이(2003~2020년)



주 1) 바 그래프에 표시된 숫자는 전체 농가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율임.

2)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2. 2019~2020년 농가소득 비교

주요 영농형태별 2020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증가,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이 농가소득 증가를 견인

논벼, 과수, 채소, 축산 농가 모두 농가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축산 농가의 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논벼 농가의 2020년 농가소득은 3,528만 원으로서 2019년 대비 16.6% 증가하였으며 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28.6% 증가함으로써 농가소득 증가에 가장 많이 기여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농업소득의 기여도가 높았음.
- 논벼 농가의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9.0% 증가하였음. 이는 논벼 수확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하였고 지연되었던 쌀 변동직불금이 지급된 결과로 판단됨.
- 과수 농가의 2020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하였음. 이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피해가 늘어나면서 재해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였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하여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4.3%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었음.

〈표 1〉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변화(2019~2020년)

단위: 천 원, %

연도	소득	영농형태				
		전체	논벼	과수	채소	축산
2019년	농가소득	41,182	30,246	35,273	28,844	75,466
	농업소득	10,261	10,032	14,485	11,508	50,558
	농외소득	17,327	4,550	4,181	4,221	7,386
	이전소득	11,230	13,045	14,356	11,014	14,821
2020년	농가소득	45,029	35,275	40,545	33,893	81,124
	농업소득	11,820	10,933	18,005	12,712	55,002
	농외소득	16,608	4,986	4,383	4,722	8,503
	이전소득	14,263	16,781	16,144	14,092	15,668
2019~2020년 증감분(증감률)	농가소득	3,847 (9.3)	5,029 (16.6)	5,272 (14.9)	5,049 (17.5)	5,658 (7.5)
	농업소득	1,559 (15.2)	901 (9.0)	3,520 (24.3)	1,204 (10.5)	4,444 (8.8)
	농외소득	-719 (-4.1)	436 (9.6)	202 (4.8)	501 (11.9)	1,117 (15.1)
	이전소득	3,033 (27.0)	3,736 (28.6)	1,788 (12.5)	3,078 (27.9)	847 (5.7)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채소 농가의 경우 농가소득이 2019년 대비 17.5% 증가하였는데 주로 이전소득의 증가에 힘입은 결과임. 채소 농가의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27.9% 증가하였음.
- 축산 농가의 농가소득 증가율은 7.5%로 타 농가에 비해 다소 낮았는데 이는 주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증가가 주요인이었음. 축산 농가의 경우 이전소득 증가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축산 농가의 평균 소득이 타 분야보다 높아 저소득층에만 지급되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종 농가와 달리 공익직불금의 지급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¹⁾

모든 경지규모에서 농가소득은 증가, 중규모 농가의 농가소득 증가 뚜렷

중규모 농가의 농가소득이 증가한 주요인은 이전소득과 농업소득의 대폭적인 증가

- 경지규모가 클수록 농가소득 증가 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에서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0.7% 증가하는 데 그쳤음. 특히 대규모 농가의 소득 증가가 미미한 수준에서 그친 것은 농외소득의 감소가 주된 원인임.
- 규모별로는 2.0~5.0ha 미만 농가의 소득이 전년 대비 15.5% 증가하여 전 계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으며 그다음으로는 0.5~2.0ha 미만, 0.5ha 미만의 순으로 증가 폭이 컸음.
- 0.5~2.0ha 미만 농가와 2.0~5.0ha 미만 농가의 경우, 이전소득 증가분이 모든 소득원 중 가장 컸으며 농업소득도 15.9~20.8% 증가하여 전체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데 기여하였음.

공익직불금의 역진적 구조가 이전소득에 영향을 미쳐 경지규모별로 이전소득의 기여 정도에 차이가 존재

-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2020년 농가소득은 3,638만 원으로 2019년 대비 3.8% 증가하였음. 이는 주로 이전소득 때문이었는데, 0.5ha 미만 농가의 이전소득 증가율은 0.5~2.0ha 미만 농가에 비해 높게 나타남. 0.5ha 미만 농가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의 영향으로 판단됨.
- 중규모 농가(2.0~5.0ha 미만)에서는 경지규모가 커질수록 이전소득 증가율이 다른 규모 대비 크게 나타났으며, 3.0~5.0ha 미만 농가의 이전소득 증가율은 37.2%로 가장 높았음.
- 반면 5.0ha 이상 농가의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451만 원(24.8%) 증가하여 3.0~5.0ha 미만 농가보다 절대액이나 증가율 면에서 증가폭이 낮았음.
- 이는 공익직불금의 면적 직불금 단가가 역진적으로 설계되어 5.0ha 이상 농가의 농업보조금 증가율이 3.0~5.0ha 미만 농가에 비해 낮았고, 사적이전이나 비경상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임.

1) 소농직불금의 경우, 축산소득이 5,600만 원 이상인 농가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표 2〉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변화(2019~2020년)

단위: 천 원, %

연도	소득	경지규모				
		전체	0.5ha 미만	0.5~2.0ha 미만	2.0~5.0ha 미만	5.0ha 이상
2019년	농가소득	41,182	35,053	37,759	49,924	81,494
	농업소득	10,261	2,022	8,338	21,111	42,764
	농외소득	17,327	20,188	16,738	13,699	17,268
	이전소득	11,230	10,407	10,514	12,634	18,185
2020년	농가소득	45,029	36,378	41,724	57,647	82,037
	농업소득	11,820	2,136	10,070	24,467	42,390
	농외소득	16,608	18,883	16,225	14,193	14,003
	이전소득	14,263	13,118	13,193	16,409	22,694
2019~2020 증감분(증감률)	농가소득	3,847 (9.3)	1,326 (3.8)	3,965 (10.5)	7,723 (15.5)	543 (0.7)
	농업소득	1,559 (15.2)	114 (5.6)	1,732 (20.8)	3,355 (15.9)	-374 (-0.9)
	농외소득	-719 (-4.1)	-1,304 (-6.5)	-513 (-3.1)	494 (3.6)	-3,265 (-18.9)
	이전소득	3,033 (27.0)	2,710 (26.0)	2,680 (25.5)	3,775 (29.9)	4,509 (24.8)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연령이 높을수록 농가소득 증가 폭 확대, 70세 이상 고령층의 농가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50세 미만 농가의 2020년 농가소득은 2019년과 비슷, 나머지 농가의 농가소득은 2019년 대비 증가

- 경영주 연령 50세 미만 농가의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음. 그 이유는 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42.3%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 증가율이 3.3%에 머물렀고, 코로나 19로 인해 겸업수입의 감소하는 등 농외소득이 15.6% 감소하였기 때문임.
- 50대와 60대 농가의 농가소득은 각각 전년 대비 5.5%, 7.9% 증가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이전소득 증가가 있었음.
- 70세 이상 농가의 소득은 전년 대비 591만 원(21.1%) 증가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이 각각 36.9%, 25.1%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임.

〈표 3〉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 변화 추이(2019~2020년)

단위: 천 원, %

연도	소득	경영주 연령				
		전체	50세 미만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19년	농가소득	41,182	55,219	66,745	47,398	27,989
	농업소득	10,261	16,526	13,481	14,191	5,897
	농외소득	17,327	28,517	43,834	18,552	7,842
	이전소득	11,230	9,203	6,654	11,956	12,163
2020년	농가소득	45,029	55,277	70,417	51,160	33,899
	농업소득	11,820	17,071	14,930	15,587	8,076
	농외소득	16,608	24,061	44,563	18,243	8,205
	이전소득	14,263	13,093	9,232	14,751	15,213
2019~2020년 증감분(증감률)	농가소득	3,847 (9.3)	58 (0.1)	3,672 (5.5)	3,762 (7.9)	5,910 (21.1)
	농업소득	1,559 (15.2)	544 (3.3)	1,449 (10.7)	1,396 (9.8)	2,179 (36.9)
	농외소득	-719 (-4.1)	-4,455 (-15.6)	729 (1.7)	-309 (-1.7)	362 (4.6)
	이전소득	3,033 (27.0)	3,890 (42.3)	2,578 (38.7)	2,795 (23.4)	3,049 (25.1)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3. 코로나19 전·후의 도농 간 가구소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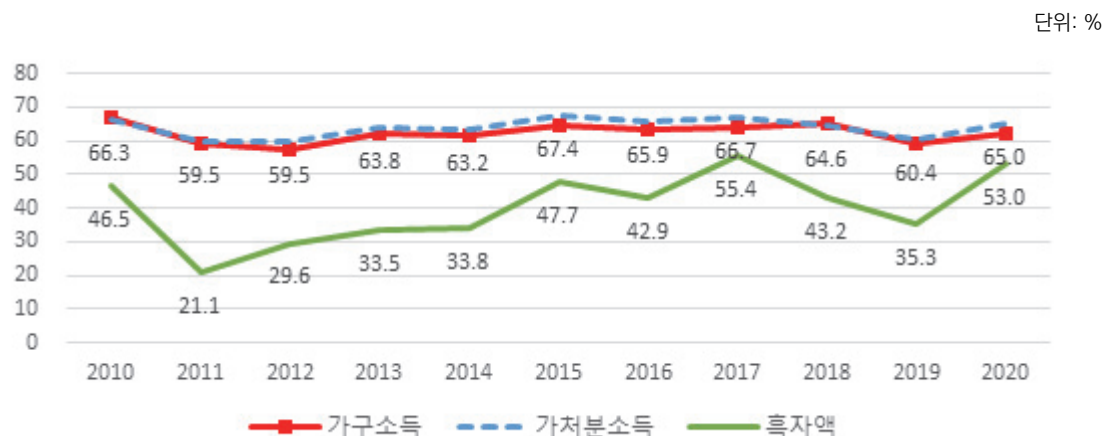
도농 간 소득 격차는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

도시 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소득 격차는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가구 흑자액의 차이는 감소하는 추세

-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평균 62.3% 선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가구소득에서 가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을 기준으로 보면, 도시 가구 대비 농가 흑자액 비율은 2011년에 21.1%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53.0%까지 증가하였음. 농가의 흑자액 증가는 농촌지역의 물가 상승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판단됨.²⁾

2) 6대 광역시와 경기도의 2010~2020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6%이나 나머지 도 지역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7%였음.

〈그림 2〉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



주 1)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2) 1인 가구 제외.

3) 가처분소득=가구소득-비소비지출, 흑자액=가구소득-가계지출

4) 2017년 이후부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소득은 분기별 소득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연산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 농가의 소득이 더욱 크게 증가

- 도시 근로자 소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93만 원(4.2%)이 증가하였으나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가분보다 높은 385만 원(9.3%)이 증가하면서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59.3%에서 62.2%로 증가함.
- 도시 근로자 가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소폭 증가하고, 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가구소득이 증가하였음.
- 농가의 경우, 이전소득 증가가 전체 가구소득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농산물 가격 호조, 경영비 감소 등으로 농업소득의 증가 폭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임.

가계지출을 고려하더라도 농가의 경제 상황이 도시 근로자 가구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개선

- 가구소득에서 세금, 공과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가 286만 원 증가하였으나 농가는 439만 원 증가하여 도시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가구소득에서 가계지출을 뺀 흑자액은 도시 근로자 가구가 전년 대비 331만 원(20.0%) 증가하였으나 농가는 그보다 훨씬 많은 469만 원(80.3%) 증가함.
- 도시 가구와 농가 모두 자발적 지출인 소비지출을 비슷한 수준에서 축소하였으나 비소비지출 면에서 도시는 소폭 상승, 농가는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에 농가의 가처분소득과 흑자액이 더욱 많이 증가함.

〈표 4〉 도농 간 소득 차이(2019~2020년)

단위: 천 원, %

소득/지출	도시 근로자 가구			농가		
	2019년	2020년	2019~2020 증감분(증감률)	2019	2020	2019~2020 증감분(증감률)
가구소득	69,434	72,362	2,928 (4.2)	41,182	45,029	3,847 (9.3)
가계지출	52,859	52,475	-384 (-0.7)	35,339	34,494	-845 (-2.4)
소비지출	38,167	37,716	-451 (-1.2)	27,221	26,915	-306 (-1.1)
비소비지출	14,693	14,759	67 (0.5)	8,118	7,580	-538 (-6.6)
가처분소득	54,741	57,602	2,861 (5.2)	33,064	37,449	4,385 (13.3)
흑자액	16,574	19,887	3,312 (20.0)	5,843	10,534	4,691 (80.3)

주 1)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2) 1인 가구 제외.

3) 가처분소득=가구소득-비소비지출, 흑자액=가구소득-가계지출

4) 2017년 이후부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소득은 분기별 소득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연산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농가가 도시 근로자 가구와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50대 농가가 가장 작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

- 50세 미만 농가의 가구소득은 동 연령대의 도시 근로자 가구에 비해 2019년에는 77.6%, 2020년에는 74.9%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50대 농가는 동 연령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89.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농가 내에서도 50대가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그 결과, 농가소득이 가장 많았기 때문임.
- 60대와 70세 이상 농가의 경우, 동 연령대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에 비해 각각 82.5%, 80.3%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50대 이상 가구에서는 도농 소득 격차 축소, 50세 미만 가구에서는 확대

- 50대의 경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7,661만 원에서 7,914만 원으로 3.3% 증가한 반면 50대 농가의 소득은 6,675만 원에서 7,042만 원으로 5.5% 증가하면서 도농 간 소득 격차는 2020년에 축소되었음.
- 마찬가지로, 60대와 70세 이상 가구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소득이 도시 가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도농 간 격차는 이전보다 감소하였음.
- 7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가구소득 증가에 주로 기여한 것이 이전소득의 증가라는 점에서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없지만 도시 가구 소득 증가분의 대부분은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농가에서는 농업소득의 기여도도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또한 도시 가구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재난지원금의 증가에만 주로 의존하였다면 농가는 농업보조금

이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있어 직불금 수령으로 인한 소득 증가와 함께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재난 지원금 등의 직접 지원 효과도 함께 누림.

- 50세 미만 가구의 경우, 농가의 소득 증가분은 미미한 수준(2020년 증가율 0.1%)인 반면 도시 가구의 가구소득은 2020년에 3.7% 증가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음.

〈표 5〉 가구주(경영주) 연령별 도농 간 소득 비교(2019~2020년)

단위: 천 원, %

가구주 (경영주) 연령	2019년			2020년		
	도시 근로자 가구(A)	농가(B)	B/A*100	도시 근로자 가구(A)	농가(B)	B/A*100
50세 미만	71,186	55,219	77.6	73,808	55,277	74.9
50~59세	76,605	66,745	87.1	79,143	70,417	89.0
60~69세	58,831	47,398	80.6	62,016	51,160	82.5
70세 이상	37,438	27,989	74.8	42,226	33,899	80.3

주 1)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2) 1인 가구 제외.

3)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소득은 분기별 소득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연산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02

소득원천별 소득 변화와 원인

1.1. 농업소득

2020년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5.2% 증가, 주요인은 가격 상승 및 보험금 지급에 따른 농업총수입 증가

2020년 역대 최장 장마 일수, 일조량 부족 등 자연재해로 인해 다수 노지작물 공급량이 감소한 반면, 농산물 수요 감소가 크지 않아 수급 불균형 발생, 전년 대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³⁾

- 주요 영농형태인 논벼(90만 원 증가), 과수(352만 원 증가), 채소(120만 원 증가), 축산(444만 원 증가) 농가 모두 농업소득이 증가하였음.

〈표 6〉 영농형태별·소득원천별 소득 증감 비교(2019~2020년)

단위: 천 원, %

구분	2019년 수입 및 소득			2020년 수입 및 소득			2019~2020년 증감분(증감률)		
	농업 총수입	경영비	농업 소득	농업 총수입	경영비	농업 소득	농업 총수입	경영비	농업 소득
평균	34,436	24,175	10,261	36,033	24,212	11,820	1,596(4.6)	37(0.2)	1,559(15.2)
논벼	28,106	18,074	10,032	28,741	17,807	10,933	635(2.3)	-266(-1.5)	901(9.0)
과수	41,756	27,271	14,485	47,543	29,538	18,005	5,788(13.9)	2,267(8.3)	3,520(24.3)
채소	35,839	24,330	11,508	34,924	22,212	12,712	-915(-2.6)	-2,119(-8.7)	1,204(10.5)
축산	176,736	126,179	50,558	178,908	123,906	55,002	2,172(1.2)	-2,273(-1.8)	4,444(8.8)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논벼 농가) 농업소득 증가는 판매가격 상승과 변동직불금 지급, 경영비 감소가 주요인으로 작용

- 2020년 논벼 농가 농업총수입, 농업소득은 각각 2,874만 원, 1,0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농업총수입은 2.3% 증가, 경영비는 1.5% 감소하여 농업소득은 9.0% 증가함.
- 재해에 기인한 생산량 감소와 고품질 쌀에 대한 집밥 수요 증대가 맞물려 생산량 감소율(-6.4%)보다

3) 7대 곡물의 소비지수는 138.2에서 134.4로 소폭 하락, 5대 채소의 소비지수는 112.2에서 113.8로 소폭 상승, 6대 과일은 36.0에서 31.8로 하락, 3대 육류는 54.9에서 54.3으로 소폭 하락하여 전반적인 소비 감소 추세가 뚜렷하지 않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22). 또한 2020년 도시 가구의 음식·숙박 지출액은 8.5% 감소한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액은 16.6%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농산물 소비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9, 2020).

가격 상승률(14%)이 더 높아 총수입은 증가함.

- 2019년에 지급하지 않은 변동직불금 2,336억 원⁴⁾이 2020년 2월에 지급(농가당 평균 36만 4천 원) 되어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함.
- 논벼 농가 경영비 감소 비율은 채소나 축산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논벼 농가들의 고용 노동력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과수 농가)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 가격의 급등 및 재해보험금 지급으로 과수 농가 농업소득 증가

- 2020년 과수 농가 농업총수입, 경영비, 농업소득은 각각 4,754만 원, 2,954만 원, 1,8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9%, 8.3%, 24.3% 증가함.
- 봄동상해(꽃(눈) 피해) 및 긴 장마(일조량 부족)로 인한 생육 장애 발생, 태풍으로 인한 낙과 등 초봄부터 수확기까지 지속적인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고품질 과일 소비량 증가로 가격이 급등하여 농업총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함.
- 4대 과수(사과, 배, 단감, 뽕은감) 농가는 약 4,414억 원, 전체 과수 농가는 역대 최고인 약 5,173억 원의 보험금(과수 생산액의 약 11.4%)을 수령하여 농업총수입과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함.
- 2019년 거대재해 영향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여 타 영농형태와는 달리 경영비가 증가하였음.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노동인력 수급의 문제를 가족노동으로 대체하여 노무비는 전년 대비 9.6% 감소함.

(채소 농가) 농업총수입 감소분보다 경영비 감소분이 더 커 농업소득 증가

- 2020년 채소 농가 농업총수입, 경영비, 농업소득은 각각 3,492만 원, 2,221만 원, 1,2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농업총수입(-2.6%)과 경영비(-8.7%)는 감소하였으나 경영비 감소분이 더 커 농업소득(10.5%)은 증가함.
- 타 품목과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채소 소비량이 줄어 농업총수입은 감소함. 하지만 타 영농형태와 비교해 외국인 고용노동 비율이 높은 채소 농가들은 인력 수급에 애로를 겪어 주요 영농형태 중 노무비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경영비 감소의 주원인으로 작용함.

(축산 농가) 농업총수입 소폭 증가, 경영비 소폭 감소로 농업소득 증가

- 2020년 축산 농가는 전년 대비 농업총수입(1억 7,891만 원)은 1.2% 증가, 경영비(1억 2,391만 원)는 1.8% 감소하여 농업소득(5,500만 원)이 8.8% 증가함.

4) 2020년 논벼 농가에게 지급된 변동직불금은 2018, 2019년 합산 금액임.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 내 국산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여 축산 농가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침. 다만 학교 급식에 크게 의존하는 낙농 농가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 우유 급식이 중단되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축종별로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음.
- 축산 농가 역시 고용노동이 많은 과수, 채소 농가와 동일하게 노무비가 감소하여 경영비 감소를 이끔. 하지만 상시 고용노동 비율이 높아 과수와 채소 농가보다는 노무비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1.2. 농외소득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의 여파로 70세 미만 농가에서는 대부분 농외소득이 감소

농외활동 비율이 높은 젊은 층에서 농외소득의 감소 폭이 컸음.

- 코로나19로 겸업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2020년 농외소득은 전년 대비 4.1% 감소하였음.
-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농가와 50대 농가에서 겸업소득의 감소폭이 컸으며 반대로 70세 이상 농가에서는 9.7% 증가함.
- 50대 가구의 경우, 농외노동을 늘림으로써 사업외소득이 17.7% 증가하여 겸업소득의 감소를 상쇄하였으며, 그 결과 농외소득이 소폭(1.7%) 증가함.
- 70세 이상 가구의 겸업소득 및 사업외소득 또한 증가하여 농외소득 전체적으로는 4.6% 증가함.

〈표 7〉 경영주 연령별 농외소득 변화(2019~2020년)

단위: 천 원, %

경영주 연령	2019년			2020년			2019~2020년 증감분(증감률)		
	농외 소득	겸업 소득	사업외 소득	농외 소득	겸업 소득	사업외 소득	농외소득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평균	17,327	5,828	11,499	16,608	4,930	11,679	-719(-4.1)	-898(-15.4)	180(1.6)
50세 미만	4,550	931	3,618	24,061	7,723	16,338	-4,455(-15.6)	-3,981(-34.0)	-474(-2.8)
50~59세	4,181	759	3,422	44,563	13,850	30,712	729(1.7)	-3,881(-21.9)	4,610(17.7)
60~69세	4,221	955	3,266	18,243	5,420	12,823	-309(-1.7)	-251(-4.4)	-58(-0.4)
70세 이상	7,386	1,830	5,556	8,205	2,244	5,961	362(4.6)	199(9.7)	163(2.8)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은 임업 및 어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발생

-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수입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였으며 제조업, 건설업, 농업서비스 등에서도 거리두기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함.

〈표 8〉 겸업수입 변화(2019~2020년)

단위: 천 원, %

업종	2019년	2020년	2019~2020년 증감	
			증감분	증감률
임업 및 어업	639	668	29	4.6
제조업	2,387	2,274	-113	-4.7
건설업	1,111	1,015	-96	-8.7
농업서비스	496	450	-46	-9.3
음식·숙박	2,093	1,650	-443	-21.2
도소매	4,976	3,788	-1,189	-23.9
기타	3,459	2,753	-706	-20.4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사업외소득 중 농업임금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인력 부족으로 노동 수요는 높았으나 노동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실제 수령한 농업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 농외임금은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는 겸업소득의 감소를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서 농외노동활동을 늘린 결과로 해석됨. 특히 50대 농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남.

〈표 9〉 사업외소득 변화(2019~2020년)

단위: 천 원, %

업종	2019년	2020년	2019~2020년 증감	
			증감분	증감률
급여수입	9,705	9,820	115	1.2
농외임금	9,443	9,614	171	1.8
농업임금	262	206	-56	-21.4
자본수입	1,970	2,024	54	2.7
농지임대수입	331	296	-35	-10.7
기타자본수입	1,640	1,728	89	5.4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3. 이전소득

공익직불제 도입과 재난지원금 쌍끌이 효과로 2020년 이전소득 전년 대비 27.0% 증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보조금 전년 대비 39.8% 증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기타공적보조금 전년 대비 24.3% 증가

- 2020년 농가 이전소득은 1,4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3만 원(27.0%)이 증가하였으며 기타공적보조금이 98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증가액 중 대부분은 공적보조금(299만 원)으로 공익직불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 목적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전소득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표 10〉 경영주 연령별 이전소득 변화(2019~2020년)

단위: 천 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19~2020년 증감분(증감률)		
	이전 소득	농업 보조금	기타 공적 보조금	이전 소득	농업 보조금	기타 공적 보조금	이전 소득	농업 보조금	기타 공적 보조금
평균	11,230	2,688	7,882	14,263	3,759	9,796	3,033(27.0)	1,071(39.8)	1,914(24.3)
50세 미만	9,203	5,923	3,268	13,093	7,123	5,752	3,890(42.3)	1,200(20.3)	2,485(76.0)
50~59세	6,654	3,738	2,664	9,232	4,883	4,118	2,578(38.7)	1,145(30.6)	1,453(54.6)
60~69세	11,956	3,128	8,445	14,751	4,400	9,974	2,795(23.4)	1,272(40.7)	1,529(18.1)
70세 이상	12,163	1,818	9,309	15,213	2,819	11,305	3,049(25.1)	1,001(55.0)	1,996(21.4)

주 1)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2) 이전소득 중 사적보조금, 비경상소득은 표시하지 않아, 농업·기타공적보조금 합계가 이전소득보다 적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농업보조금) 공익직불제 실시로 농가당 평균 107만 원 증가, 70세 이상 농가의 보조금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음.

- 2020년 농업보조금은 공익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전년 대비 39.8% 증가하였음. 경영주 50세 미만이 가장 많은 농업보조금(712만 원)을 받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농업보조금은 감소 추세를 보임(50대 488만 원, 60대 440만 원, 70세 이상 282만 원).
- 다만 경영주 연령대별로는 전년 대비 50세 미만은 20.3%, 50대 30.6%, 60대 40.7%, 70세 이상 55.0% 증가하여 경영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율이 커짐.
- 경영주 연령 70세 이상 농가에서 농업보조금 증가 비율이 가장 큰 이유는 소농직불금(0.1~0.5ha까지 120만 원)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반대로 경작규모가 가장 큰 경영주 연령인 50세 미만 농가의 농업보조금 증가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면적이 커질수록 면적당 직불금 지급액이 줄어들도록 직불제를 설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기타공적보조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농가당 191만 원 증가, 경영주 50세 미만 농가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음.

- 코로나19가 가져온 경기 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2020년 농가의 기타공적보조금은 전년 대비 24.3% 증가함.
- 경영주 연령대별로 50세 미만과 50대는 각각 575만 원, 412만 원으로 평균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으며 60대 997만 원, 70세 이상 1,131만 원으로 평균보다 많은 금액을 받음.
- 경영주 연령 50세 미만 농가의 증가 비율(76.0%)이 가장 컸음. 반대로 가구원 수가 적은 경영주 연령인 60대와 70세 이상의 증가 비율은 각각 18.1%, 21.4%로 나타나 가구원 수로 차등 지급(40만~100만 원)한 재난지원금이 연령대별로 기타공적보조금의 증가율에 큰 영향을 끼쳤음.
- 경영주 연령 60대 미만과 60대 이상 간 기타공적보조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만 60세 이상부터 수급권을 얻는 국민연금과 만 65세 이상부터 수급권을 얻는 기초노령연금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

〈표 11〉 경지규모/영농형태별 농업공적보조금 변화 비교(2019~2020년)

단위: 천 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19~2020년 증감분(증감률)
경지 규모	0.5ha 미만	542	1,084	542(99.9)
	0.5~2ha 미만	2,010	2,828	818(40.7)
	2~5ha 미만	5,695	7,531	1,836(32.2)
	5ha 이상	12,129	14,882	2,753(22.7)
영농 형태	논벼	3,948	5,681	1,733(43.9)
	과수	3,503	5,364	1,860(53.1)
	채소	2,419	3,146	727(30.1)
	축산	7,088	7,580	493(7.0)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경지규모별 농업보조금) 소농직불금의 영향으로 0.5ha 미만 농가 농업보조금 증가율 최대

- 공익직불제의 역진단가 설계 영향은 경지규모별 농업보조금 증가율에 단적으로 나타남. 농업보조금 증가액 자체는 경지규모가 클수록 많았으나 반대로 증가율은 경지규모가 작을수록 높아 0.5ha 미만 농가의 농업보조금 증가율(99.9%)이 가장 높았음.

(영농형태별 농업보조금) 축산 농가가 가장 많은 농업보조금을 수령하지만 공익직불제 영향 미미

- 축산 농가는 758만 원의 농업보조금을 받아 주요 영농형태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나 전년 대비 49만 원(7.0%) 증가에 그쳐 공익형 직불제는 축산 농가의 소득에 제한적 영향을 미침.

2020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요인

-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익직불제 단가가 지급되기 때문에 과거에 받직불제로 논보다 낮은 단가(ha당 55만 원)를 받던 과수 농가의 농업보조금 증가율(53.1%)이 가장 높았음.
- 다만 채소 농가는 농업보조금 증가율이 과수 농가와 비교해 낮았는데 채소 농가 농지 일부는 지난 3년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아 공익형 직불제 지급 농지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추측됨.⁵⁾

(가구원 수·연령별 기타공적보조금) 경영주 65세 이상 농가의 기타공적보조금 1천만 원 초과

- 농가경제조사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농가의 기타공적보조금이 2인 이상 모든 가구원 수에서 1천만 원을 초과함. 따라서 고령농일수록 기타공적보조금이 소득원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고령농가 소득의 주요 소득원 중 하나임을 나타냄.

〈표 12〉 가구원 수·연령별 기타공적보조금 변화 비교(2019~2020년)

단위: 천 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19~2020년 증감분(증감률)	
	65세 미만	65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평균	4,632	9,578	6,146	11,332	1,514(32.7)	1,754(18.3)
2인	4,411	9,453	6,147	11,240	1,736(39.4)	1,786(18.9)
3인	5,315	10,230	6,327	11,524	1,012(19.0)	1,294(12.6)
4인	4,179	12,610	5,234	13,772	1,055(25.2)	1,162(9.2)
5인 이상	4,906	9,240	7,393	11,759	2,487(50.7)	2,518(27.3)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5) 공익형 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중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며, 채소 농가 일부는 경지규모가 작아 과거에는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03

농가의 소득불평등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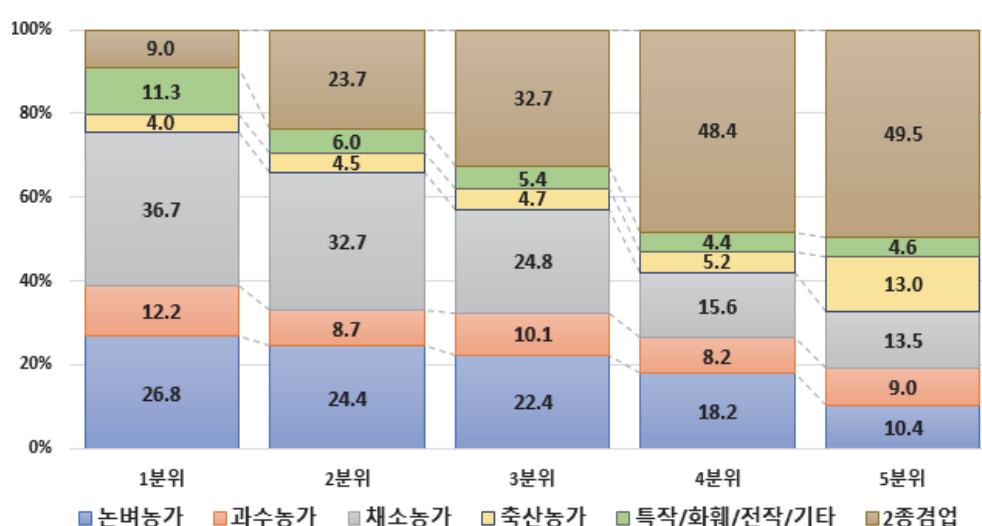
1.1. 소득분위별 농가 특징

소득이 낮을수록 채소 및 논벼, 고령, 소규모 농가 비율 증가

(영농형태) 소득이 낮은 그룹일수록 채소 및 논벼 농가의 비율이 크고, 소득이 많은 그룹일수록 겸업 및 축산 농가의 비율이 크게 나타남.

- 1분위 그룹에서의 채소 및 논벼 농가의 비율은 각각 36.7%, 26.8%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점점 감소하여 소득 5분위 그룹 내 채소 및 논벼 농가의 비율은 각각 13.5%, 10.4%임.
- 반면 1분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4.0%)과 2종 겸업농가(9.0%) 비율은 5분위에 서는 각각 13.0%, 49.5%로 높게 나타나, 소득이 증가할수록 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3〉 2020년 소득분위별 영농형태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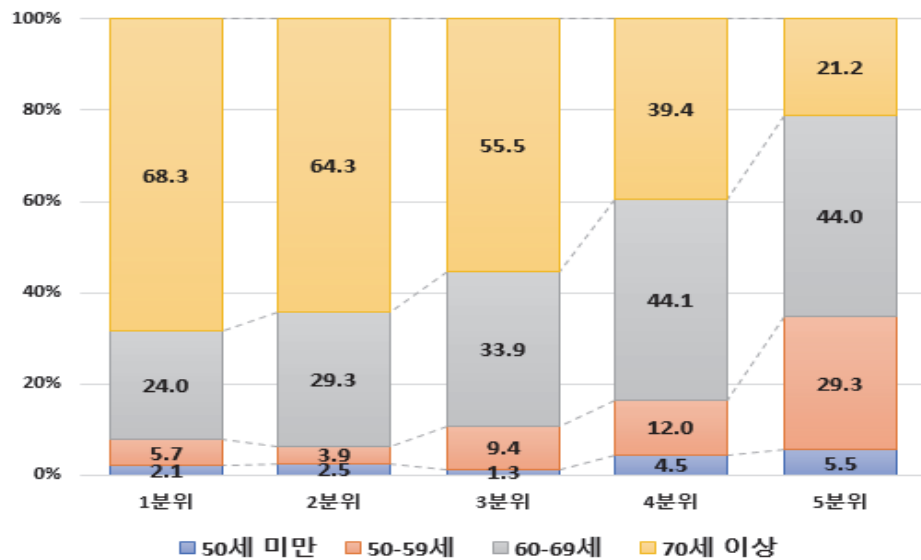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0).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경영주 연령)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경영주 연령 70세 이상 농가의 비율이 증가

- 경영주 연령 70세 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1분위의 경우 68.3%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5분위의 경우 이보다 47.1%p 낮은 21.2%임.
- 5분위에서 가장 비율이 큰 경영주 연령대는 60~69세(44.0%)이며, 다른 소득 그룹과 비교하여 50~59세(29.3%) 비율이 큼.

〈그림 4〉 2020년 소득분위별 연령대 비율



자료: 통계청(2020).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2. 소득 5분위별 농가소득 변화

2020년에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큰 폭의 소득 증가를 경험하는 동시에 소득불평등도는 완화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소득 1분위이며, 가장 낮은 그룹은 5분위

- 2020년 1분위 가구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1.6% 증가하였으며, 2분위는 15.3%, 3분위는 12.9%, 4분위 10.9%, 5분위 4.4%로 증가하여,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은 소득 증가율을 보임.
- 5분위 배율은 7.64로 전년 대비 14.2%가 감소하여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동시에 소득불평등도는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판단됨.

〈표 13〉 농가소득 5분위 변화(2019~2020년)

단위: 천 원,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 배율
2019년	11,450	20,909	31,718	47,389	101,884	8.90
2020년	13,924	24,103	35,795	52,566	106,353	7.64
증감분(증감률)	2,474(21.6)	3,194(15.3)	4,077(12.9)	5,177(10.9)	4,469(4.4)	(-14.2)

주 1)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2) 농가소득 구성 항목(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중 0 미만은 수치는 0으로 처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농가소득을 재집계함.6)

3)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집단의 평균 소득)/(소득 하위 20% 집단의 평균 소득)으로 계산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소득 계층별 농가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 차이

1~4분위에서는 이전소득이, 5분위에서는 농업소득 증가가 소득 증가를 견인

- 이전소득 비율이 높은 1분위 가구는 공익직불제, 재난지원금 등 공적보조금의 증가가 농가소득 증대를 이끌었으며 2, 3, 4분위 가구 역시 이전소득 증가액이 농가소득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침.
- 반면 5분위 가구는 농외소득은 감소,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했으며 이 중 농업소득의 증가액이 가장 높아 고소득 농가는 농업소득 증가로 인해 농가소득이 증가함.

〈표 14〉 농가소득 분위별 소득원천별 소득 증감 비교(2019~2020년)

단위: 천 원, %

소득 계층	2019년			2020년			2019~2020년 증감분(증감률)		
	농업 소득	농외 소득	이전 소득	농업 소득	농외 소득	이전 소득	농업 소득	농외 소득	이전 소득
1분위	1,650	1,505	6,952	1,951	1,636	8,984	300(18.2)	132(8.7)	2,032(29.2)
2분위	4,564	4,945	9,535	4,807	5,330	12,149	243(5.3)	386(7.8)	2,613(27.4)
3분위	7,800	10,087	11,666	8,394	10,230	14,861	594(7.6)	143(1.4)	3,195(27.4)
4분위	10,580	20,821	14,007	12,405	20,251	17,844	1,825(17.3)	-570(-2.7)	3,837(27.4)
5분위	33,991	49,454	13,976	38,893	45,849	17,473	4,902(14.4)	-3,605(-7.3)	3,497(25.0)

주 1)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2) 농가소득 구성 항목(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중 0 미만은 수치는 0으로 처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농가소득을 재집계함.

3) 소득원천별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6)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은 농가에 따라 항목별로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OECD의 지침에 따라 그 값을 0으로 처리한 후 합쳐서 계산함(우병준 외 2017). 따라서 농가소득의 지니계수는 실제 불평등도를 과소 계산할 가능성이 존재함.

04

요약 및 시사점

1.1. 2020년 농가소득 변화와 요인

2020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9.3%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

- 2020년 농가소득은 이전소득 증가와 농산물 판매 호조로 4,503만 원을 기록하였음.
-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동시에 도농 간 소득 격차가 감소하였고 농가 간 소득 양극화도 완화되었음.

2020년 농가소득에는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발생이라는 외부 환경요인과 정부의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

코로나19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

- 코로나19로 인해 노동력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고용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농가의 노무비가 감소하였음.
-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음식점업이나 체험활동 등에서의 겸업수입이 감소함.

농업소득 상승을 견인한 것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임.

- 역대 최장 장마 일수, 일조량 부족 등 자연재해로 인해 다수 노지작물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함.
- 수요 측면에서는 외식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가정 내 식사가 증가하면서 농산물 소비량 감소 폭이 크지 않았음.

코로나19 대책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공익직불제 시행 및 쌀 변동직불금 지급, 농업재해보험금 지급 등 정부의 직접 지원 정책이 농가소득 상승에 크게 기여

- 재난지원금은 도시 가구의 농산물 소비 여력을 증가시켜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역대 최대 규모의 재해보험금 지급과 변동직불금은 농업소득의 증가를, 고정직불금과 공익직불금의 지급은 이전소득의 증가로 이어짐.

1.2. 시사점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영위험은 상존하므로 경영위험관리 정책을 강화할 필요

- 2020년은 농산물 가격·수급이 농가에 유리하게 작용한 해였으나 농산물 수급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역할이 중요함.
- 특히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농업정책보험을 포함한 경영위험 관리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정책보험 가입 확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보험료 현실화를 위하여 요율체계 변경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음.

저소득 고령 농가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

- 2020년에는 농가 간 소득 격차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농가가 저소득 상황에 처해 있으며 특히 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에는 영세 고령 농가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후 소득안전망 강화는 중요한 정책과제임.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보다 많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는 지원 폭을 확대하여 저소득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최근 농지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장기영농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대상품을 마련하는 등 농지연금 제도의 개선안을 발표하였음. 농지연금의 해지율을 낮추고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 소득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당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

노동력의 안정적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노동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채소, 과수 농가의 경우 내국인을 고용하거나 자가노동을 늘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노동력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가에 부담이 쌓이고 있음.
-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부문 일자리 소개·알선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체계를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⁷⁾

7) 엄진영 외(2020)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공식 공급 경로가 농업부문 외국인 고용을 주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품목과 농사 특성에 맞도록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세분화하고 지역별 농업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노동력 공급 지원체계가 내실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부록

1인 가구의 농가소득 동향⁸⁾

1.1. 1인 농가의 특성

1인 가구 농가는 2인 이상 농가 대비 채소, 논벼 농가의 비율이 크며, 고령화·영세화

1인 가구 농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농가는 채소 농가, 그다음은 논벼, 2종 겸업농가 순서

- 1인 농가 중 채소 및 논벼 농가의 비율은 각각 33.2%, 28.2%였으며, 이는 2인 이상 농가의 영농형태에서 동일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각각 8.5%p, 7.8%p 높았음.

1인 가구 농가는 2인 이상 농가와 비교했을 때 0.5ha 미만 농가 비율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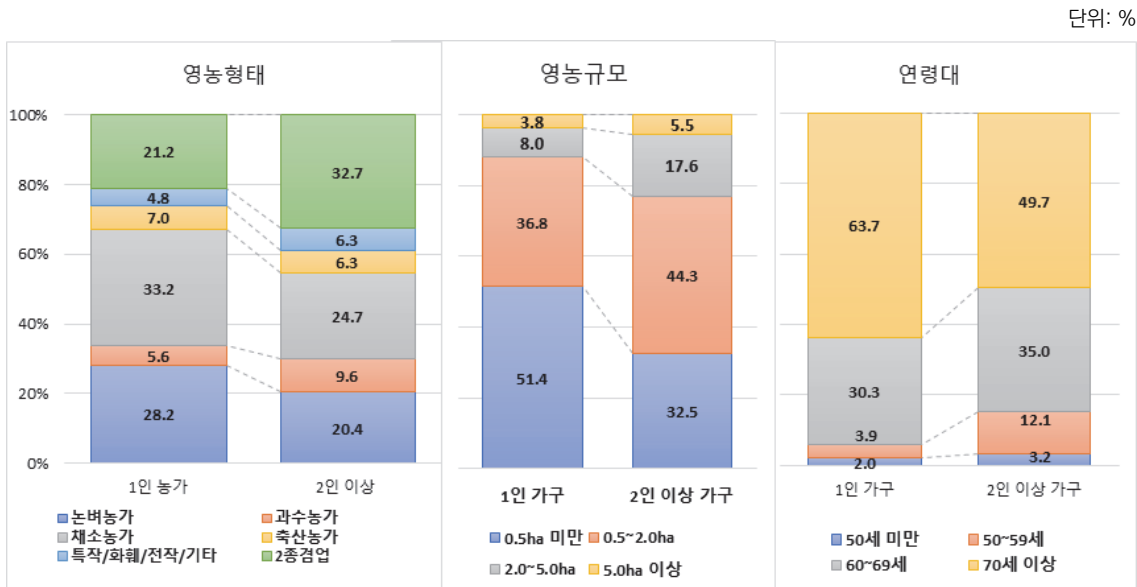
- 1인 가구 농가에서 0.5ha 미만 농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51.4%로 가장 컸으며, 이는 2인 이상 농가에서 동일한 규모대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18.9%p 높았음.
- 1인 농가의 0.5ha 이상 농가의 비율은 48.6%로, 2인 이상 농가보다 18.8%p 낮았음.

1인 가구 농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영주 연령대는 70세 이상임.

- 1인 가구 농가의 과반수가 70세 이상의 고령농(63.7%)이며, 이는 2인 이상 농가에서 동일한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49.7%)보다 14%p 높은 수준임.
- 1인 가구 농가의 60대 농가 비율은 30%대로 2인 이상 농가와 비슷하지만, 59세 이하 농가 비율은 9.4%p 낮은 5.9%로 젊은 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8) 농가경제조사는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농가로 조사된 108만 8,518개 농가를 모집단으로 하여 2단계 층화추출을 통해 총 3,000개의 표본을 추출하며 그중 2,900개의 표본은 2인 이상 가구, 100개의 표본은 1인 가구로 구성됨. 일반적으로 농가경제조사 결과 발표 시 제시되는 평균치는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록을 통해 1인 가구의 특성과 소득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농가 전체의 소득 동향을 파악하고자 함.

〈부도 1〉 2020년 1인 가구 농가 영농형태/영농규모/연령대별 비율



자료: 통계청(2020),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2. 1인 가구의 농가소득

전년 대비 2020년 1인 가구 농가소득은 증가

2020년 1인 가구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이전소득 증가로 인해 전년보다 3.0% 증가

- 2020년 1인 가구 농가 소득은 1,604만 원으로 2019년 1,557만 원보다 3.0% 증가함.
- 2019년 대비 2020년 농외소득은 122만 원(27.5%) 감소하였지만,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이 각각 52만 원(25.9%), 161만 원(22.4%) 증가하여 농외소득 감소분을 상쇄시킴으로써 전체적인 농가소득은 증가함.

2020년 1인 가구 농가소득은 2인 이상 가구 농가소득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는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의 차이로부터 기인

- 2020년 1인 가구 농가소득은 2인 이상 가구 농가소득인 4,503만 원의 35.6% 수준인 1,604만 원임.
- 소득원별로 비교해보면, 1인 가구의 이전소득은 2인 이상 농가의 61.6% 수준이지만, 그 외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은 2인 이상 농가의 20% 내외 수준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부표 1〉 1인 가구 농가소득

단위: 천 원, %

소득	1인 농가			2인 이상 농가	2인 농가 대비 비율
	2019년	2020년	2019~2020년 증감분(증감률)	2020년	
농가소득	15,568	16,039	471 (3.0)	45,029	35.6
농업소득	2,020	2,544	524 (25.9)	11,820	21.5
농외소득	4,443	3,222	-1,221 (-27.5)	16,608	19.4
이전소득	7,183	8,793	1,610 (22.4)	14,263	61.6
비경상소득	1,922	1,480	-442 (-23.0)	2,337	63.3

주: 1인 농가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20년 1인 가구 농가 중 전년 대비 가장 소득이 크게 감소한 농가 유형은 축산, 대규모(5ha 이상), 경영주 연령대 50세 미만 농가

2020년 논벼, 과수, 채소 1인 가구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축산 농가의 소득은 하락함.

- 2020년 1인 가구 농가 중 논벼(16.7%), 과수(31.6%), 채소(16.3%) 소득은 증가함. 반면 축산 농가의 경우, 2019년 1,935만 원에서 2020년 1,175만 원으로 감소하였음.

5ha의 대규모 농가소득이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2~5ha 미만 중규모 농가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함.

- 2020년 2~5ha 미만 농가의 소득은 2,727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9.6% 증가한 수준임. 반면 5ha 이상 농가소득은 21.9% 감소하여 2,312만 원을 기록함.

2020년 1인 가구 농가 중 50대 농가의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가장 소득이 적은 연령대는 50세 미만임.⁹⁾

- 2020년 50대 농가의 소득은 전년 대비 113.7% 증가한 3,269만 원임. 반면 50세 미만 농가의 소득은 전년 대비 102.3% 감소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소득이 적음.

9) '50세 미만'과 '50~59세' 연령대의 표본 수는 작으므로(5농가 미만)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표 2〉 1인 가구 농가 유형별 소득

단위: 천 원, %

농가유형		2019년 (A)	2020년 (B)	2인 이상 농가 (C)	2019-2020년 증감분(증감률)		전체 대비 (B/C)*100
영농형태	논 벼	15,299	17,860	35,275	2,561	(16.7)	50.6
	과 수	14,572	19,175	40,545	4,603	(31.6)	47.3
	채 소	13,189	15,343	33,893	2,154	(16.3)	45.3
	축 산	19,352	11,750	81,124	-7,602	(-39.3)	14.5
영농규모	0.5ha 미만	15,187	16,149	36,378	962	(6.3)	44.4
	0.5~2ha 미만	13,502	12,709	41,724	-793	(-5.9)	30.5
	2~5ha 미만	21,045	27,269	57,647	6,224	(29.6)	47.3
	5ha 이상	29,596	23,115	82,037	-6,481	(-21.9)	28.2
연령대	50세 미만	18,923	-433	55,277	-19,356	(-102.3)	-0.8
	50~59세	15,299	32,688	70,417	17,389	(113.7)	46.4
	60~69세	14,572	14,148	51,160	-424	(-2.9)	27.7
	70세 이상	13,189	15,641	33,899	2,452	(18.6)	46.1

주 1) 1인 농가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2) '50세 미만'과 '50~59세' 연령대의 표본 수는 작으므로(5농가 미만)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참고문헌

- 엄진영·박대식·조승연·김윤진·이창원·최서리·신예진·이상지. 2020.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우병준·임소영·이두영·이형용·한보현. 2017.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제15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제1장 2021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21』.
-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_____.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KREI 현안분석

감 수	김태훈 선임연구위원	061-820-2174	taehun@krei.re.kr
내 용 문 의	임소영 연구위원	061-820-2239	sylim@krei.re.kr
발간물문의	유정인 선임전문원	061-820-2282	edela@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85호

2020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1. 9.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